

광주 고등학생 65명 꿈 실은 독서열차



광주 학생들의 꿈을 실은 열차가 23일 광주송정역에서 '평화와 문화의 도시' 파주로 출발했다.

광주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상재 원장)과 광주MBC(송일준 대표이사 사장)가 공동으로 기획한 제7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 프로그램이 25일까지 2박 3일간 파주시(출판단지, 통일전망대 등) 일원에서 진행된다.

'내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광주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우리나라 출판의 중심인 파주 출판단지를 방문해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출발 전부터 미리 책을 읽고 토론 방법을 배웠으며, KTX를 타고 이동하며 객차 내에서 직접 토론 주제를

시교육청·광주교육연구정보원·광주MBC 공동기획 2박 3일 '우리나라 출판 중심지' 파주시 일원서 진행 독서토론·저자와의 만남·통일전망대 방문 등 참여

정해 2박 3일의 일정 중 2차례의 팀별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 파주 출판단지에서는 심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명필름 영화 학교, 출판사와 인쇄소에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고, '모모야 어디가?'의 저자인 김소담 작가와의 만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일정 중 통일전망대 방문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호중영어자교등학교 이하람 학생은 "꼭 오고 싶었던 독

서열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여러 친구들과 독서를 주제로 다양한 토론과 체험을 한다는 것이 매우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은 출발에 앞서 이루어진 기념식에서 "제7회를 맞은 독서열차가 꿈을 이루어 가는 모든 학생들의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함께 하는 여러 친구들과의 만남이 여정이 끝나고 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는 토론과 성장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안착 지원

2020년 전면도입 앞두고 재무회계 컨설팅트 역량강화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오는 2020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오전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사학연금공단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컨설팅트 및 에듀파인 멘토 86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2020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회계·인사 교육과 실제 운영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무회계 컨설팅트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위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한국교육학술연구정보원(KERIS) 강사를 초빙해 에듀파인 대표강사와 멘토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8월까지 권역별 에듀파인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2학기에는 지역별 유치원 실정에 맞춰 에듀파인 이용자 교육 및 찾아가는 1:1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교육연구원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동영상 매뉴얼 원격연수를 개설해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 참석한 한 주무관은 "오늘 교육을 통해 공립과는 다른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 및 현실을 이해하고, 컨설팅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혁신교육과정해사 과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교육과 1:1멘토, 정기적인 재무회계 컨설팅을 실시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담양교육지원청, 사진치료 활용한 학교부적응·위기학생들의 마음 이끌기

사진치료를 활용한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Wee센터는 23일 관내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6명을 대상으로 '사진치료를 활용한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들의 마음 이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나우심리상담센터·나우영화치료연구소 방미나 대표를 초빙해 학교상담현장에서 만나는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진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진 매체의 치유적 속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화상과 가족 앨범을 가지고 작업하기, 사진탐색과정을 활용한 투사적 기법, 사진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기법, 사진작업과정에서 지니

야할 상담자의 자세 등 다양한 기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사진치료라는 새로운 상담 기법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상담 장면에서 자기노출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감정을 다루는 데 사진이미지작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집단 상담에서 초기 라포 형성 및 탐색과정에 적용하면 학생 간 소통을 이끄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같다"라며 이번 연수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정희 교육장은 "의미 있는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매체활용 상담 기법을 연구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상담현장에서 다양한 상담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담당자 연수 등을 지



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담양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자기이해 및 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여 심리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진도교육지원청, 옥주골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찬회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민의식)은 지난 17일 관내 유·초·중등교원과 진도교육참여위원회 위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2019 상반기 옥주골 전문적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연찬회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주제로 운영하였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국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교육공동체가 만들어가는 학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의 고민과 교원의 마인드 제고를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을 실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초등학교 최일성 교감선생님은 "실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강의를 해주신 이재남 정책국장님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공감을 느끼며 중간 관리자

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방법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민의식 교육장은 "바람직한 방향의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바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마인드 제고에 더욱 힘쓰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진도=조상용 기자

광주시교육청, 2019 아버지교실 '프렌디 플레디' 개최

아버지 학부모 40여명 대상...인식변화 이끌어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일부터 22일까지 4차시에 걸쳐 관내 아버지 학부모 4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교육정보원 소강당에서 2019 아버지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일과 시간 이후인 저녁 7시부터 실시해 직장 있는 아버지

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최근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아버지 역할 중요성과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 강사들이 가족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MBTI(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내

안의 모습 찾기, 전통놀이를 통한 세대공감, 식생활교육, 요리체험 등 학부모들이 다양하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매 시간 유익하고 흥미로운 교육이 진행됐다.

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안석 과장은 "적극적인 자녀 양육 참여 기회 확대, 가족간의 소통 및 올바른 가족관 확립을 위해 아버지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운영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4차시 교육 횟수가 짧게 느껴질 만큼 가족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